

# “물건만 있으면 날씨는 문제도 아니라”

[제주잠녀] 101.<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2)제주시 이호동

등록 : 2008년 01월 14일 (월) 15:12:04  
최종수정 : 2008년 01월 14일 (월) 15:12:04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물질을 마치고 나오는 잠녀들.

“어떻게 ‘소라마중’도 안나오고…”

바람 소리만 가득했던 바다에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가 굴러다닌다.

톤 높은 웃음 소리에 누가 누구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말 소리에 잠깐 졸았던 바다에 하늘까지 깜짝 눈을 떴다. 아침 나절 잔잔했던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 #“내 짐이 가벼워 대신 들고 왔주게”

제주시 이호동 바다를 찾은 날, 이곳 잠녀들은 올해 첫 물질에 나섰다. 손은 생각만큼 무겁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찾은 바다에 잠녀들은 수십년전 처음 물질을 하던 때로 돌아간 듯 했다.

“난 오늘 하나해서…” 넋두리처럼 말을 내뱉은 한 잠녀는 이내 다른 잠녀의 손을 뉘진다.

“아이고 하영도 했져(많이도 했네)” “나거 아니, 들고 올게 여성 ××거 대신 들엉 완(내 것이 아니라 들고 올게 없어서 ××것을 대신 들고 왔어)”

뒤따르는 건 깔깔하는 웃음소리다.

15년 전 만해도 차량을 동원하지 않으면 작업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나던 바다였다.

지금도 가끔 물량이 많을 때면 남편이나 자식이 ‘소라마중’을 한다고 했다.

이날 "소라마중도 안 나왔다"는 타박은 그러나 반어법이다. 별다른 수확없이 올해 첫 작업을 한 것을 위안이나 하듯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인다.

오전 8시 첫빌레 작업에 나서기 전에 불을 피워둔 불턱에는 어느새 소라와 고동 몇 개가 구수한 냄새를 내며 익어간다.

탈의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옛 불턱의 정취는 없어졌지만 일부러 불턱 형태만은 남겨뒀다.

누구네 집 아들이 올해 장가를 간다더라, 누구집 개가 이번에 새끼를 5~6마리 낳았다 하는 세세한 동네 소식 역시 이곳을 통하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다.

첫 물질 작업은 2시간 여만에 끝났다. 물량도 생각에 훨씬 못미친다.

"날씨쯤은 대수도 아니다. 물건이 있으면 5시간도 넘게 작업을 했을텐데..."말꼬리가 흐려진다.



물질로 잡아 올린 문어

## # 내어준 바다에 희망을 담고

이후 바다에는 매립공사가 한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마을 바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제주이호랜드가 들어선다. 8만5800여㎡의 면적에 마리나 시설과 호텔·수족관 등 위락시설, 100m 높이의 잠녀상이 세워진다고 했다.



틀멍게

바다를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았다.

30년 넘게 양식장으로 이용하던 현사마을 앞 바다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잠녀들과 마을의 우려로 일부 보상도 받았

고, 매립 이후 조간대 시설을 해 체험어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약속했다.

81명인 잠녀 중 실제 물질을 하는 잠녀는 37명. 투석작업에 전복종패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벌이는 점점 줄어든다는 하소연이 뒤따른다.

이곳 역시 상시 잠녀 중 60대가 19명, 70대가 15명 등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계가 많이 났다고는 하지만 1년에 한사람 당 벌어들인 것이 120만원 상당. 수원지가 있어 30kg짜리 330포대 물량의 천초가 난데 반해 톳은 거의 나지 않았다. 소라에 꼬막사리, 보말, 해삼, 문어 등 해서 이른바 상군 잠녀가 1년에 1000만원 남짓 수익을 올렸다.

감굴이니 발일을 통해 버는 수익이 적잖지만 이곳 잠녀들은 바다를 떠날 생각이 없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10대 초반부터 꾸준히 물질을 해왔다는 김춘자 잠녀(56)에게 바다는 삶을 지탱하는 큰 위안이다. 물 속 작업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김달봉 어촌계장은 "올해 전복 작업을 하겠다는 잠녀들을 '어느 정도 상품으로 키운 다음에 작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마을 전체가 바다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제대로 관리해야지 않겠냐"고 말했다.